

시 초

2월에 넘기는 그리움의 찬가

백두산! 그리움의 성산이여

김 태 룡

백두산의 아들 우리 장군님 그리워
 워선가
 뜻깊은 광명성절의 이 아침
 백두는 눈보라를 빙설천지에
 터친다
 휘몰아 천리수해 내닫는 거센 칼
 바람소리
 아, 백두가 터치는 그리움 그리움이여

성산아래 천하를 붉게도 물들이누나
 광명성탄생의 감격으로 설레던 이
 백두에서
 영원한 광명성찬가 리치고싶어라
 장군님 그리는 인민의 마음속에
 그리움의 산악으로 성스러운 백두산
 너 없이는 어이 조선의 그리움을
 말하랴

인민이 드리는 경모의 꽃바다이
 런가
 백두산밀영고향집
 정갈한 트랙 아름드리거목의 가
 지마다
 눈꽃도 하얗게 은빛세계 펼쳐니
 못견디게 사무쳐오는 장군님의 그
 미소

장군님 탄생하신 백두산
 그이의 영상 그이의 숨결, 박동이
 이 백두에 비끼고 어리어있어
 장군님생각 간절한 광명성절 이
 아침
 친민의 마음 그이품에 안기듯 백두로
 달려가거니

소백수 맑은 물도 장군님 찾고 부
 르며
 가슴젖는 노래 부르고 부르누나
 천만산악 거느린 정일봉마루의 저
 해돋이도
 그리움에 타는 불덩이런듯

에서 우리 영원히 노래하리라
 광명성절의 환희와 격정을
 우리 아버지의 위대한 영생을
 백두를 떠나 그리움을 말할수 없는
 오, 백두산 백두산 그리움의
 성산이여

올려가라 2월의 찬가여

강 은 별

추억은 이렇듯
 노래에 실려오기도 하는것입니까
 광명성절 이 아침
 한해전 2월 무대에 올려져있던 노래
 이 가슴의 심금 울려어줍니다
 《친근한 이름》

우리 원수님의 그리움
 인민이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장군님 한평생이 다 어려웠는 노래
 그 성스런 한생을 뜨겁게 안아
 보시는
 원수님의 그리움이 어려웠는 노래

얼마나 장군님생각 간절하셨으면
 원수님 것처럼 깊은 애정 품으시고
 구절구절 따라 부르셨겠습니까
 얼마나 심중에 그리움 차넘치셨
 으면
 격정의 선률에 심신 맡기신것이었
 습니까

아, 《친근한 이름》!
 이 찬가 2월에 올려 인민의 가슴에
 해빛같은 장군님 미소 안겨주시고
 김정일 친근하고 다정하신 그 존함
 우리 생활에 세세년년 노래로 울
 리게 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마치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신것같아
 그 회열의 세계에 계시고싶은 마음
 그리도 불같이이어
 원수님 다시 요청하신 노래
 이 노래는 장군님 모시고싶으신
 그이의 열망

아이들도 어른들도 한목소리로
 어디서나 부르고 부르는 이 노래
 우리 원수님
 대대손손 장군님 모시고 살아갈
 무궁한 세월우에 영원토록 올려
 주시는
 그리움의 찬가 2월의 찬가여

공연은 끝났어도 아쉬움 있으신듯
 거듭 들으셨건만 다시 듣고싶으신
 심정
 원수님 뜻깊게 올려주시는 이 노래
 들을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
 노래하자 김정일 우리의 지도자
 자랑하자 김정일 친근한 이름

삼지연은 노래한다

리 송 일

누구나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뜨거운 2월이지만
 백두산밀영고향집과 한 트랙을
 이은
 여기 삼지연땅에 사는

우리의 그리움은 더욱 간절합니다
 흐르는 세월을 하루같이
 마음속에 장군님 모시고 살아왔
 건만

백두산기슭의 새 거리, 새 마을
 들에서
 여든번째 년풍의 광명성절 맞으니
 오늘따라 더더욱 그리워지는
 아버지장군님

현대적인 리상거리 한복판에
 지금도 60여년전 모습 그대로 서
 있는
 한채의 귀틀집에서 우리 새겨부
 니다
 고풍불이 긴긴 밤을 태우고
 못침승들 울부짖음에 문풍지가
 울던
 이 귀틀집에 장군님 모셨던 그날을

소년담사행군대오 이끌고 오시였던
 장군님
 앞으로 삼지연지구는
 대로천혁명박물관으로
 세상에 없는 훌륭한 도시로 될것
 이라고
 뜨겁게 하시던 그날의 그 음성이어

그날 장군님 우리에게 그려주시던
 인민의 지상락원
 정말 우리 삼지연땅에 일떠섰습니
 다
 시원하게 뻗어나간 새 거리며 아
 담한 살림집
 즐비하게 늘어난 봉사망들이며 희
 환한 궁전...
 못내 장군님께 보여드리고싶습
 니다

이런 행복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
 한평생 생신날, 명절날에도
 방방곡곡 험한 길 걷고 걸으시던

길에 대한 생각

유 현 의

잠들 줄 모르는 밤
 그리움으로 깊어가는 2월의 밤
 불밝은 수도의 거리에 나서니
 뻗어간 길이여, 너는 내 가슴에
 하얗은 생각 불러주누나

남녘의 해녀와 배에 오르셨던
 바다길
 오늘도 저 북변에 사연같이 뻗어
 있고
 끊어진 교암선철탑의 송전선
 아프게 바라보시던 대덕산마루
 그 산중엔 세월도 지우지 못한
 장군님자욱

길이란 시작도 끝도 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 한평생 걸으신 통일
 의 길
 그 길엔 끝이란 있었던가
 동일, 동일이 무엇이어서
 그이 그 길 한생토록 걸으시었던가

백리를 가시었다 걸음 멈추셨고
 천리를 가시었다 돌아서신적 있었
 으라
 겨레를 안고 이 땅의 분열을 끝장
 내시려
 안가보신 길 넘지 않으신 령이 없
 겠만
 줄어들 줄 몰랐던 장군님의 통일
 애국의 길

이 밤길이 통일으로 가닿아있다면
 백리, 천리라도 더 가고싶다 하시던
 장군님
 어이 알랴
 내 추억같이 걷는 이 밤길이
 그날에 그이 걸으셨던 그 길은 아
 니지

그 길은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신
 최전방
 위험천만한 관문점의 새벽길로 잇
 달았고
 동일의 응지 품고 삼천리를 굶어
 보시던
 흰눈덮인 백두산마루
 그 아아한 산정에도 닿아있
 거니

장군님 끝없이 가고가신 통일의 길
 마음속에 더듬어보는 2월의 밤길
 삼지연땅에 안아오신 천지개벽일
 니다

나는 걷는다
 장군님 통일한평생의 그 길을 걷
 는다

오늘도 울려오는 종소리

김 영 일

태양의 노래는 이 땅에서만 울리
 는가
 세계의 하늘가에도 울려퍼진 찬가
 장군님 청송하는 인류의 마음
 담아
 오늘도 울려오는듯싶어라
 종소리 종소리...

이 어찌 그만의 심정이었으랴
 머나먼 지역망 그 어디 가시어도
 다함없는 청송 받으신 아버지장군님
 아, 그날의 사원의 종소리는
 온 세상에 울려퍼진 흠모의 환호
 만민이 터치던 매혹의 진정

장군님을 모신 기쁨을 한껏 싣고
 사원에 울려퍼지던 종소리
 오랜 세월 어기지 않던 계를을 깨고
 때아니게 울려퍼지던
 은은한 종소리 종소리

비오면 누구나 그 정에 끌리고
 운명을 스펀없이 맡기는 장군님
 넓은 품에 세계를 품어안으시고
 나아갈 미래 밝혀주시는
 우리 장군님은 위대한 태양!

세상만물 다 비쳐달라고
 태양이 제일 높이 떠오르는 정오
 그 시간에 종소리 울리던 사원이
 었건만
 장군님 모신 기쁨 하도 큰것이어서
 그 걱정 종소리로 울리고 울렸나니

세월은 멀리 흘러갔어도
 오늘도 울려오는 그날의 종소리
 그 종소리 울리는 하늘가에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영상이런가
 2월의 태양은 눈부시게 밝아라

우리 사원에 태양이 오셨다고
 태양이 오셨는데 종을 울리는것은
 너무도 웅당한 일이라고
 신부가 심금을 터쳐 드린 감각의
 토로

태양을 따르는 인류의 마음
 그 마음을 싣고 울리는 종소리
 세기와 세기를 넘어
 세월의 끝까지 울려가라
 태양청송의 찬가로 끝없이 울려어
 가라

이 땅에 흐른 10년세월은

리 철 준

그리움으로만 흐른 세월이었던가
 이 땅에 흐른 10년세월은
 돌아보면 가슴뜨겁게 어려오누나
 장군님송결 우리의 심장에 이어
 주시며
 우리 원수님 걸어오신 뜻깊은 자욱
 자욱이

장군님 그려보시던 절경이 아니던가
 오곡을 품어안고 불어오는 가을
 바람
 소매 흐르는 싱싱한 들판의 설레
 입소리
 이채어경 펼친 포구에 끊길새
 없는
 만선의 힘찬 배고동소리
 장군님 바라시던 행복의 노래 아
 니던가

못견디게 장군님 그리울수록
 그 그리움으로 타는 가슴에 인민
 을 안고
 원수님 헤쳐오신 헌신의 자욱자욱
 장군님뜻으로 해와 달 빛내여
 오신
 그 자욱은 10년세월에 빛뿌리누나

우리의 힘은 또 얼마나 강해졌
 는가
 강권을 휘두르는 독재의 광란도
 감히 견드리지 못하는 강대한
 조국
 존엄은 더 높이 우주로 솟고
 력사의 광풍 길들여 위용 떨치는
 이것이 장군님 바라신 조선의 힘
 이었으니

얼마나 눈부시게 달라졌는가
 우리 사는 이 땅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장군님 바라셨던 그 모든 리상
 인민이 누리려는 행복, 만복의 재부
 로 펼쳐신
 오, 원수님의 불타는 총정이어!

정녕 장군님 평생년월 꽃피운
 10년
 태양의 줄기찬 역사만을 이어온
 10년
 그것은 우리 원수님
 가장 열렬한 그리움으로
 가장 불같은 총정으로
 2월의 이 아침에 삼가 드리시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송가여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80돐을 경축하여

중앙 사진 전람회 개막

전국미술축전 《애국헌신의 한평생》 중앙미술전시회 개막



우표 전시회 개막

제 10 차 광명성절료리기술경연 개막